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147-172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허 효 선† 임 선 영 권 석 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의 시작을 미루는 착수지연과 일의 마무리를 미루는 완수지연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고, 각 지연행동 유형과 완벽주의 및 충동성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측정하는 도구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두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선정하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ICPS)를 구성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AICP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AICPS는 높은 내적 합치도와 적절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API), 한국판 CES-D 척도(CES-D),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와의 상관분석 결과, AICPS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연구 3에서는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은 학업적 착수지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완벽주의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학업적 완수지연의 경우, 완벽주의가 충동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착수지연, 완수지연, 완벽주의, 충동성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13년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허효선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층 / Fax: 031-787-4058 / E-mail: hhs1006@hotmail.com

www.kci.go.kr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대학생의 70%가 학업 과제를 자주 미루는 경향을 보이며, 성인의 20% 정도가 만성적으로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llis & Knaus, 1977; Hammer,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70~95%가 학업적 지연행동을 경험하고 있으며(Steel, 2007), 만성적이고 심각한 지연행동을 하는 대학생만도 20~30%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McCown & Johnson, 1991; Solomon & Rothblum, 1984). 주어진 과제를 실수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마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지연행동은 심각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연행동의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연행동은 학업 부진, 스트레스 유발, 후회, 절망, 불안, 우울, 자기비난, 죄의식, 수치심과 관련이 있었고(임성문, 2006; Burka & Yuen, 1983, 2008; Fee & Tangney, 2000; Lay, 1995; Pychyl, Lee, Thibodeau, & Blunt, 2000; Sadler & Sacks, 1993), 학업적 지연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심각한 수준의 비합리적 신념과 낮은 자존감을 지니며(Solomon & Rothblum, 1984), 낮은 성적을 취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Tice & Baumeister, 1997). 이와 같이 지연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적응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지연행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Solomon과 Rothblum(1984)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때까지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위'라고 보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Ferrari, 2001; Solomon & Rothblum, 1984)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Milgram(1991)은 지연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는 지연행동자들이 연속적으로 미루는 행동을 하며, 평균 수준 이하의 수행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미루고,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혼란 상태에 빠진다고 하였다.

같은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연행동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어, Ferrari(1992)는 지연행동을 '각성형 지연행동'과 '회피형 지연행동'으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각성형 지연행동은 마감시간에 임박해 일함으로써 스릴을 추구하는 감각추구 동기에서 비롯되는 지연행동인데 반해, 회피형 지연행동은 자존감 저하의 위협을 가져오는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지연행동이다. Milgram, May-Tal과 Levinson(1998)은 지연행동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학업적 지연행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과제나 시험 준비를 미루는 행동을 의미하며, 둘째, '일상적 지연행동'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결정 지연행동'은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넷째, '강박적 혹은 역기능적 지연행동'은 결정 지연과 행동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지연행동'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미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연행동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유형을 연구하기 위한 측정도구 역시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던 지연행동의 측정도구인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

www.kci.go.kr

Aitken, 1982), 학생용 지연 특성 평가 척도(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Students, PASS; Solomon & Rothblum, 1984), 그리고 Tuckman 지연척도(Tuckman Procrastination Scale, TPS; Tuckman, 1991)가 지연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일이나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늦게 완수하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연행동은 과제의 착수와 완수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Ferrari, 2001; Solomon & Rothblum, 1984)이며, 지연행동이 부적응적인 이유는 과제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척도들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연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연행동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특히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래 전부터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Burka & Yeun, 1983, 2008; Hamachek, 1978; Missidine, 1963). Hamachek (1978)에 따르면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함에 대한 욕구에 의해 강하게 동기화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여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 Pacht(1984)는 완벽주의자의 지연행동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임상적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한 내담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였던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불행해 했다. 그가 거둔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며, 그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에 집착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보고서가 '완벽하지 않아서'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와 First(1989)의 사례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한 내담자가 가족의 의뢰로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다. 그는 '완벽주의와 부동(immobility)' 때문에 약 7년 간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내담자는 예정했던 것보다 한 학기 늦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보고서가 '완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임상 사례에 따라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동안 발표된 연구 결과는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를 이용한 연구에서, MPS-F의 총점과 실수에 대한 염려 차원은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는 지연행동의 빈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은 지연행동의 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

www.kci.go.kr

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Ferrari et al., 1995;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에 대한 염려는 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지만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비난은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박현주, 정대용, 2010),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여러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사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임성문, 2006; Ferrari et al., 1995; Hewitt, Flett & Blankstein, 1991), 본 연구자는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지연행동 척도가 지연행동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즉, 완벽주의자들은 과제에 일찍 착수하더라도 수행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과제를 수정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결국 제 시간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의 마무리를 미루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척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불일치했을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성격 유형인 충동성 또한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Ellis와 Knaus(1977)는 지연행동자가 만족지연을 못하고, 실패나 좌절에 대해 낮은 인내심을 보이며, 과제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을 미루고 다른 활동에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Lay(1987) 그리고 McCown, Johnson과 Petzel(1989)은 지연행동이 신경증과 관련 있는 유형과 충동성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ewitte와 Schouwenburg(2002)의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자가 지속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이며 갈망이나 순간적인 욕구를 뿌리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Ferrari (1993)는 지연행동자가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들에 비해 충동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지연행동과 충동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Aitken, 1982; Johnson & Bloom, 199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충동적인 사람들은 계획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Barratt, 1985) 주어진 과제에 착수하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며,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방해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므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수행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지연행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자들은 수행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여겨, 과제에 빠르게 착수하더라도 완성을 미루는 지연행동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서로 대조적인 성격 특성으로 보이는 충동성과 완벽주의 모두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두 집단이 보이는 지연행동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밝히고, 특히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찾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과제의 시작을 미루는 착수지연과 과제의 마무리를 미루는 완수지연을 구분하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를 개발하였고, 연구 2에서는 새로운 척도를 타당화하는 작업을 하여 지연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완벽주의 및 이와 대조되는 성격 특성인 충동성이

www.kci.go.kr

각 지연행동 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행연구에서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충동성은 착수지연과, 그리고 완벽주의는 완수지연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 Ⅰ.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의 문항 개발 및 요인구조 탐색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17세에서 33세로, 남자(89명)의 평균 연령은 22.28세(SD: 3.11), 여자(62명)의 평균 연령은 21.21세(SD: 2.91)였다.

측정도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척도

과제의 시작을 미루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과제의 마무리를 미루는 학업적 완수지연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적 수행에서 흔히 나타내는 지연행동을 반영하는 문항 44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학업적 착수지연 관련 문항은 24개, 학업적 완수지연 관련 문항은 20개였다.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비척도 구성 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제시하였다.

절차

1단계: 1차 예비문항 구성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학업적 착수지연은 '과제를 늦게 시작해서 완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학업적 완수지연은 '과제를 일찍 시작했으나 완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은 기존의 '지연행동'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타당화 된 지연행동 척도들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6문항을 만들었다. 학업적 완수지연은 착수지연 관련 문항들의 구조를 바꾸거나, 학업적 완수지연의 조작적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항들을 만들어 24개의 학업적 완수지연 관련 문항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진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2단계: 예비문항 수정

임상 ·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과 임상심리전문가 2명이 1단계에서 구성된 예비문항을 검토하였다. 구성개념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는 학업적 착수지연 관련 문항 24개, 학업적 완수지연 관련 문항 20개, 총 44문항으로 이루어진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3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www.kci.go.kr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주축요인추출(principle-axis factoring)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방식으로는 사각회전 방식(promax, kappa = 4)을 사용하였다. 고유치, scree plot,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해서 요인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최소한 .40 이상이어야 좋은 문항으로 간주하였고, 하나의 문항이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거나 요인 부하량의 차가 .10 미만인 경우 교차 부하(cross loading)되었다고 간주하고 제거하였다. 또한 적어도 한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가 4개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결과 및 논의

연구 1의 참여자 151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척도 44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 15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4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2로 문항 간 상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946, N = 151) = 5146.28, p < .001$.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축요인추출(principle-axis factoring) 방식으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나왔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았다: 19.14, 3.76, 1.62(이하 생략). Scree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고려한 결과, 2~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인 수를 2개와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사각회전(promax, kappa = 4) 방식으로 회전한 결과, 3개의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요인이 있었다. 이는 불안정한 요인으로 여겨지므로(Costello & Osborne, 2005), 적절한 요인 수가 2개라고 판단하였다.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사각회전(promax, kappa = 4) 방식으로 회전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40미만이거나 다른 요인과 교차 부하된 문항들, 또는 안면타당도를 고려했을 때 잘못 적재된 문항들이 있어 26문항을 제거하였다.

남은 18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적합성 지수는 .91로 문항 간 상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153, N = 151) = 1789.72, p < .001$.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었고, 다른 요인과 교차 부하된 문항이 없었다. 요인 1의 고유치는 8.39였고 총 변량의 44.53%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2의 고유치는 2.81이었고 총 변량의 12.87%를 설명하였다. 두 개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57.4%였으며, 요인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51) = .390, p < .01$.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종 결과를 문항 내용과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1.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예비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편포도(N = 151)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1.56	1.388	.307	-1.310
2.	.98	1.180	1.001	-.143
3.	.91	1.003	.944	.010
4.	2.43	1.252	-.470	-.812
5.	1.58	1.290	.411	-.914
6.	1.38	1.188	.546	-.751
7.	2.62	1.210	-.772	-.271
8.	2.56	1.257	-.634	-.666
9.	2.54	1.237	-.641	-.543
10.	2.29	1.288	-.469	-.917
11.	2.16	1.405	-.155	-1.275
12.	2.48	1.221	-.506	-.712
13.	1.47	1.246	.552	-.737
14.	2.29	1.183	-.501	-.650
15.	1.42	1.206	.517	-.793
16.	1.16	1.231	.967	-.044
17.	2.25	1.211	-.454	-.878
18.	2.33	1.334	-.375	-1.048
19.	2.33	1.388	-.360	-1.136
20.	1.89	1.334	.107	-1.208
21.	2.11	1.303	-.102	-1.118
22.	1.86	1.226	.205	-.974
23.	2.39	1.258	-.452	-.838
24.	1.83	1.308	.149	-1.119
25.	2.43	1.223	-.636	-.541
26.	1.16	1.147	.897	.060
27.	1.88	1.249	.000	-1.040
28.	2.23	1.347	-.253	-1.109
29.	1.46	1.226	.481	-.874
30.	2.25	1.279	-.298	-.991
31.	1.51	1.331	.477	-.946
32.	1.67	1.399	.314	-1.242
33.	1.59	1.313	.492	-.900
34.	2.36	1.333	-.442	-.979
35.	1.79	1.202	.053	-1.068
36.	1.60	1.195	.312	-.935
37.	2.02	1.344	-.070	-1.104
38.	2.01	1.311	-.097	-1.214
39.	1.21	1.109	.772	-.130
40.	2.18	1.237	-.305	-.958
41.	1.56	1.161	.374	-.809
42.	1.68	1.244	.227	-1.017
43.	1.97	1.205	-.193	-.968
44.	2.02	1.333	-.123	-1.117

www.kci.go.kr

표 2.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최종 18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 1. 학업적 착수지연		
19.	나는 습관적으로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감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서둘러 과제를 끝내느라 고생한다.	**.935**	-.103
12.	"이제 보고서를 시작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61**	.006
28.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846**	.053
27.	보고서 제출일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816**	-.117
4.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룬다.	**.804**	-.044
7.	매번 과제 시작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과제 시작을 미루게 된다.	**.795**	.010
9.	보고서 과제가 주어지면 "나중에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	**.785**	-.075
40.	나는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769**	.089
30.	보고서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723**	.064
11.	일의 시작을 미루는 것은 나의 큰 고민거리이다.	**.723**	.076
32.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라도 늦게 시작해서 제출이 늦어진다.	**.708**	.097
	요인 2. 학업적 완수지연		
26.	아무리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라도 일찍 시작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성이 늦어지곤 한다.	-.306	**.790**
39.	일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다.	-.106	**.761**
29.	보고서를 일찍 쓰기 시작했는데도 마감 전 날에 밤을 새운다.	.064	**.703**
41.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더 이상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무리가 늦어진다.	.062	**.603**
22.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하더라도 자료를 모으는 데 열중하다가 마감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서둘러 완성시키기 바쁘다.	.236	**.590**
5.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빨리 마무리 지을 때가 없다.	.089	**.552**
31.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께서 제출일을 늦춰 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227	**.494**

연구 Ⅱ.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의 타당화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개발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내적 합치도와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PS와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API: Aitken, 1982)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연행동과 정적 상

www.kci.go.kr

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을 한국판 CES-D(Radloff, 1977)로 측정하고, 지연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존감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로 측정하여 AICPS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32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결측치를 포함한 응답을 제외한 후 총 2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18세에서 30세로, 남자(198명)의 평균 연령은 21.74세(SD: 2.34)였으며, 여자(97명)의 평균 연령은 19.88세(SD: 1.43)였다(미응답=1명).

측정도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Procrastination Scale: AICPS)

연구 1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

Aitken(1982)이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우(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1점(아니다)에서 5점(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Aitken(198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9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적 증상들에 대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0점(극히 드물게)와 3점(거의 대부분)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과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9로 나타났다.

절차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 2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된 AICPS의 교차 타당화를 위해 1요인 모형

www.kci.go.kr

과 2요인 모형을 만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

AICPS의 최종 문항들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이에 더해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AICPS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ICPS는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API)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적 분석

AICPS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29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20.0(평가판)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에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홍세희, 2000; Hoyle & Panter, 1995; Marsh, Bella, & Hau, 1996).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우선 AICPS가 1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간주한 대안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77, NNFI = .74, RMSEA = .132(90% CI: .123~.140)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나타난 2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92, NNFI = .91, RMSEA = .077 (90% CI: .068~.087)로, 1요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우수하며, 합당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AICPS가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AICPS의 신뢰도

AICP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학업적 착수지연과 관련된 11문항은 .94, 그리고 학업적 완수지연과 관련된 7문항은 .83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여 주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2의 참여자 중 111명에 대해 2주 간격으로 AICPS를 재실시한 결과,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로 나타나 AICPS가 비교적 신뢰

www.kci.go.kr

할 만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AICPS와 다른 척도의 관계

AICPS와 다른 척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AICPS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AICPS와 Aitken의 지연행동 척도의 상관관계

AICPS와 기존에 사용되던 지연행동 척도 API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AICPS의 총점(r = .76, p < .01), 학업적 착수지연(r = .79, p < .01), 학업적 완수지연(r = .42, p < .01) 모두 AP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API의 상관계수가 학업적 완수지연과 API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것은 학업적 착수지연이 기존의 '지연행동' 개

표 3. 연구 2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296)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AICPS	3.06	.78
학업적 착수지연	3.37	.93
학업적 완수지연	2.57	.87
API	2.90	.53
CES-D	0.82	.51
RSES	3.88	.65

주. AICPS =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API = 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SES = Rosenberg Self Esteem Scale

표 4. 연구 2에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N = 296)

	AICPS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	API	CES-D
학업적 착수지연	.923**				
학업적 완수지연	.763**	.456**			
API	.759**	.795**	.419**		
CES-D	.300**	.249**	.276**	.253**	
RSES	-.277**	-.168**	-.358**	-.218**	-.561**

주. AICPS =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API = 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SES = Rosenberg Self Esteem Scale

**p < .01.

www.kci.go.kr

념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학업적 완수지연과 API가 서로 다른 행동양상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대학생들이 두 유형의 행동양상을 동시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ICPS와 우울의 상관관계

AICPS와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CES-D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ICPS의 총점(r = .30, p < .01), 학업적 착수지연(r = .25, p < .01), 학업적 완수지연(r = .28, p < .01) 모두 CES-D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 우울과의 관련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기 위해 Dunn과 Clark(1969)이 제안한 Z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0.351, *ns*.

AICPS와 자존감의 상관관계

AICPS와 자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RSE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ICPS의 총점(r = -.28, p < .01), 학업적 착수지연(r = -.17, p < .01), 학업적 완수지연(r = -.36, p < .01) 모두 자존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 자존감과의 관련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기 위해 Z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완수지연과 자존감 간의 상관이 학업적 착수지연과 자존감 간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2.481, p < .01. 따라서 학업적 착수지연보다 완수지연이 낮은 자존감과 더 큰 관련성이 있음이 시사된다.

연구 Ⅲ.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의 성격적 특성

연구 3의 목적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 완벽주의 및 충동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연구자가 AICPS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연구 1과 2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일의 마무리를 늦추는 지연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임상적 사례(Pacht, 1984; Spitzer et al., 1989)를 근거로 학업적 완수지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이를 기존의 지연행동의 개념과 비슷한 학업적 착수지연과 구분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실제로 학업적 완수지연이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동성과 지연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Aitken, 1982; Johnson & Bloom, 1995)에 근거하여, 학업적 착수지연은 완벽주의와는 상반되는 성격특성인 충동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학업적 착수지연이 완수지연과 변별될 수 있음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www.kci.go.kr

참여자

연구 2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 3의 질문지를 함께 배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연구 2와 동일한 29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Procrastination Scale: AICPS)

연구 2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

Barratt(1959)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수(1992)가 번안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항상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번안된 척도는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충동성 9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개발 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이현수(1992)의 연구에서는 인지충동성이 .73, 운동충동성이 .56, 그리고 무계획충동성이 .5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F)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다차원적 관점에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 조직화 등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7에서 .93 사이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현진원(1992)에서 .79, 심혜원(1995)에서 .86, 그리고 채숙희(1997)에서 .86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통계적 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296명의 자료를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 충동성, 그리고 완벽주의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동성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3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 3에 사용된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학업적 착수지연과 BIS-11의 총점(r = .47, p < .01), 인지충동성(r = .38, p < .01), 운동충동성(r = .35, p < .01), 무계획충동성(r = 40, p < .01),

www.kci.go.kr

표 5. 연구 3에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296)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AICPS		3.06	.78
	학업적 착수지연	3.37	.93
	학업적 완수지연	2.57	.87
BIS-11		2.32	.35
	인지충동성	2.42	.41
	운동충동성	2.11	.48
	무계획충동성	2.45	.44
MPS-F		2.96	.51
	실수에 대한 염려	2.86	.74
	개인적 기준	3.28	.68
	부모의 기대	3.16	.79
	부모의 비난	2.11	.82
	행동에 대한 의심	2.87	.73
	조직화	3.20	.85

주. AICPS =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BIS-11 =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MPS-F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그리고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r = .18, p < .01), 부모의 비난(r = .14, p < .05), 행동에 대한 의심(r = .24,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MPS-F의 조직화(r = -.28, p < .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완수지연과 BIS-11의 인지충동성(r = .26, p < .01), 운동충동성(r = .30, p < .01), 무계획충동성(r = 12, p < .05), 그리고 MPS-F의 총점(r = .24, p < .01), 실수에 대한 염려(r = .25, p < .01), 부모의 비난(r = .33, p < .01), 행동에 대한 의심(r = .41,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r = .46, p < .01) 위와 같은 결과가 각 개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려면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변별을 위한 부분상관분석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서로 통제한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업적 완수지연을 통제한 후 학업적 착수지연과 다른 변인들간의 부분상관을 살펴본 결과, BIS-11의 총점(r = .40, p < .01), 인지충동성(r = .31, p < .01), 운동충동성(r = .25, p < .01), 무계획충동성(r = .38, p < .01)

www.kci.go.kr

표 6. 연구 3에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 (N = 296)

	AICPS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	BIS-11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MPS-F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
AICPS													
학업적 착수지연	.923**												
학업적 완수지연	.763**	.456**											
BIS-11	.467**	.474**	.284**										
인지충동성	.392**	.385**	.260**	.668**									
운동충동성	.384**	.348**	.305**	.841**	.422**								
무계획충동성	.342**	.397**	.125*	.821**	.340**	.490**							
MPS-F	.122*	.027	.236**	-.037	.060	.112	-.223**						
실수에 대한 염려	.240**	.180**	.254**	.158**	.229**	.236**	-.047	.823**					
개인적 기준	-.054	-.103	.048	-.145*	-.118*	.018	-.243**	.751**	.559**				
부모의 기대	.038	-.001	.089	.024	.058	.054	-.038	.641**	.389**	.365**			
부모의 비난	.249**	.145*	.332**	.204**	.184**	.291**	.022	.578**	.437**	.197**	.496**		
행동에 대한 의심	.355**	.243**	.413**	.210**	.218**	.274**	.029	.584**	.532**	.250**	.198**	.396**	
조직화	-.231**	-.277**	-.069	-.473**	-.267**	-.319**	-.495**	.526**	.167**	.417**	.191**	.018	.134*

주. AICPS=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BIS-11 =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MPS-F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p < .05$, $^{**}p < .01$

www.kci.go.kr

표 7. AICPS의 하위요인과 충동성 및 완벽주의간의 상관과 부분상관(N = 296)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	
	상관	부분상관	상관	부분상관
BIS-11	.474**	.404**	.284**	.087
인지충동성	.385**	.310**	.260**	.103
운동충동성	.348**	.247**	.305**	.175**
무계획충동성	.397**	.385**	.125*	-.068
MPS-F	.027	-.093	.236**	.252**
실수에 대한 염려	.180**	.075	.254**	.196**
개인적 기준	-.103	-.141*	.048	.108
부모의 기대	-.001	-.047	.089	.100
부모의 비난	.145*	-.008	.332**	.302**
행동에 대한 의심	.243**	.068	.413**	.350**
조직화	-.277**	-.277**	-.069	.067

주. BIS-11 =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MPS-F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p < .05. **p < .01.

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MPS-F의 조직화(r = -.28, p < .01)와는 여전히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상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MPS-F의 실수에 대한 염려(r = .07, *ns*), 부모의 비난(r = -.01, *ns*), 행동에 대한 의심(r = .07, *ns*)과는 더 이상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상관분석에서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개인적 기준이 부분상관분석에서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14, p < .01. 즉, 일의 시작을 미루는 사람들은 쉽게 과제에 몰두하지 못하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며, 일에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는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거나 조직화하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적 착수지연을 통제한 후 학업적 완수지연과 다른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을 살펴본 결과, BIS-11의 운동충동성(r = .17, p < .01), MPS-F의 총점(r = .25, p < .01), 실수에 대한 염려(r = .20, p < .01), 부모의 비난(r = .30, p < .01), 행동에 대한 의심(r = .35, p < .01)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BIS-11의 총점(r = .09, *ns*), 인지충동성(r = .10, *ns*), 무계획충동성(r = -.07, *ns*)과는 더 이상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을 일찍 시작하지만 마무리를 미루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

www.kci.go.kr

했다가 과제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하거나,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부모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수행의 질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충동성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앞서 부분상관분석에서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이 각 지연행동 유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 완수지연과 자존감 간의 상관이 학업적 착수지연과 자존감 간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는 RSES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는 충동성의 하위요인을, 그리고 3단계에는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표 8에는 종속변인으로 학업적 착수지연을, 예언변인으로는 RSES를 단계 1에, BIS-11의 하위요인인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을 단계 2에, MPS-F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를 단계 3에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9에는 종속변인으로 학업적 완수지연을, 예언변인으로는 RSES를 단계 1에, BIS-11의 하위요인 중 운동충동성을 단계 2에, MPS-F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을 단계 3에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 학업적 착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N = 296)

단계	독립변인	β	R^2	$\triangle R^2$	F	$\triangle F$
단계1	자존감	-.168**	.028	.028	8.580**	8.580**
단계2	자존감	-.009	.238	.209	22.694***	26.650***
	인지충동성	.246***				
	운동충동성	.117				
	무계획충동성	.255***				
단계3	자존감	-.009	.241	.003	15.280***	.582
	인지충동성	.240***				
	운동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228**				
	개인적 기준	.006				
	조직화	-.067				

주.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표 9. 학업적 완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N = 296)

단계	독립변인	β	R^2	$\triangle R^2$	F	$\triangle F$
단계1	자존감	-.358***	.128	.128	43.225***	43.225***
단계2			.173	.045	30.585***	15.773***
	자존감	-.295***				
	운동충동성	.220***				
단계3	자존감	-.170**	.252	.080	19.581***	10.302***
	운동충동성	.156**				
	실수에 대한 염려	-.044				
	부모의 비난	.108				
	행동에 대한 의심	.289***				

주. **p < .01. ***p < .001.

학업적 착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RSES를 가장 먼저 투입한 회귀모형은 학업적 착수지연 변량의 2.8%를 설명하였으며, 그 설명량은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BIS-II의 하위요인 3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이 모형은 학업적 착수지연 변량의 23.8%를 설명하였으며, 첫 번째 모형으로부터의 설명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MPS-F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자 이 모형은 학업적 착수지연 변량의 24.1%를 설명하였으나, 두 번째 모형으로부터의 설명량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예언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학업적 착수지연에 대한 영향력이 인지충동성(β = .240, p < .001), 무계획충동성(β = .228, p < .01)의 순서로 컸다. 하지만 자존감(β = -.009, *ns*), 운동충동성(β = .111, *ns*), 개인적 기준(β = .006, *ns*), 조직화(β = -.067, *ns*)는 학업적 착수지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학업적 착수지연은 완벽주의보다 충동성과 더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학업적 착수지연자들은 쉽게 몰두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제를 늦게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적 완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RSES를 가장 먼저 투입한 회귀모형은 학업적 완수지연 변량의 12.8%를 설명하였으며, 그 설명량은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BIS-11의 하위요인 중 운동충동성을 투입하자, 이 모형은 학업적 완수지연 변량의 17.3%를 설명하였으며 설명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MPS-F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의심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이 모형은 학업적 완수지연 변량의 7.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각 예언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행동에

www.kci.go.kr

대한 의심(β = .289, p < .001), 자존감(β = -.170, p < .01), 운동충동성(β = .156, p < .01) 순으로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염려(β = -.044, *ns*)와 부모의 비난(β = .108, *ns*)은 학업적 완수지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종합하면, 일부 학업적 완수지연자들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충동적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과제의 마무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학업적 완수지연자들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수행의 질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에 과제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마무리를 미루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학업적 완수지연이 충동성보다 완벽주의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자존감 또한 완수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연행동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업적 지연행동의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안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두 지연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ICPS)를 개발하였다. 예비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적 착수지연 요인과 학업적 완수지연 요인의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는 AICP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두 지연행동 유형이 우울 및 자존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교차 타당화를 위해 시행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에서 추출한 2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적 합치도와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 그리고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자존감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Solomon & Rothblum, 1984)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의 수준은 더 높고, 자존감의 수준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업적 완수지연과 자존감의 상관이 착수지연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완수지연이 더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연구 3의 목적은 각 학업적 지연행동 유형이 어떤 성격 변인과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업적 착수지연은 충동성과, 그리고 학업적 완수지연은 완벽주의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 자존감과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 사이의 상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충동성과 무계획충동성은 학업적 착수지연을 유의미하게 설명한 데 반해, 자존감과 완벽주의는 착수지연을 유의미하게

www.kci.go.kr

설명하지 못했다. 즉, 착수지연자들은 이미 과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수행에 몰두하지 못하고, 일에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제를 늦게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성과 계획성, 자기규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부주의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정아, 현명호, 2009). 한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행동에 대한 의심, 자존감 저하,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운동충동성은 학업적 완수지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설명량의 차이를 보았을 때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이 완수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일부 완수지연자들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여기거나, 자존감이 낮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충동적인 완수지연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즉흥적으로 시작했다가, 방해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겨 과제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제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연행동이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질적인 개념임을 보여주며, 충동성이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Aitken, 1982)를 지지한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완벽주의자들이 기존에 연구자들이 생각해왔던 지연행동과 다른 양상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의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동안 지연행동은 각성형과 회피형(Ferrari, 1992), 능동형과 수동형(Chu & Choi, 2005), 특성형과 상황형(김희정, 2010; Ferrari, 2001)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그 만큼 지연행동은 이질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이며, 연구를 실시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연행동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지연행동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지연행동자들을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타당화 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지연행동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를 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온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연행동이 일의 마무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일을 늦게 시작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연행동의 원인이 다르다면 지연행동이 나타나는 양상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충동성이 원인일 때와 완벽주의가 원인일 때의 지연행동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성과 지연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결론적으로 지연행동의 정의를 더욱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www.kci.go.kr

셋째, 본 연구는 앞으로 두 유형의 지연행동 모두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치료적 접근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착수지연자의 경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충동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완수지연자의 경우, 수행의 결과물과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지연행동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험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AICPS는 참여자로 하여금 과거의 행동을 돌이켜 보고 자신의 일반적인 행동양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 참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험연구에서 참여자가 과제를 시작하는 시간과 제출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학업 상황에서도 착수지연자와 완수지연자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착수지연을 보이는 집단과 완수지연을 보이는 집단의 특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두 유형의 지연행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과제를 시작하는 시점과 완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연행동, 특히 완수지연이 나타나는 과정을 단순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과제는 소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소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AICPS를 통해 완수지연자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소과제 하나를 마치고 나서 지연행동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마지막 소과제를 남겨놓고 지연행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내의 차이가 완수지연을 더욱 세분화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완수지연자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일반적인 학업장면에서 임상장면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업 장면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하고 만성적인 지연행동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착수지연보다 완수지연이 자존감과 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여 착수지연보다 더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지연행동 유형이 적응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울과 자존감 뿐만 아니라 불안, 걱정, 회피, 부적응적 신념 등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기타 변인들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울장애(이정아, 현명호, 2009; Saddler & Sacks, 1993), 강박장애(Ferrari & McCown, 1994) 등의 정신병리도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AICPS를 통해 이러한 심리장애의 환자군이 어떤 지연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감을 경험하는지,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ww.kci.go.kr

넷째, 완수지연이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뿐만 아니라 운동충동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동적인 완수지연과 완벽주의적인 완수지연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의미하거나, 충동적인 사람들이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동시에 보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분류기준을 수정하여 충동적인 착수지연자, 충동적인 완수지연자,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완수지연자로 지연행동을 분류하여,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충동적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착수지연을 보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완수지연을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사이의 상관이 높게 나오는 이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이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과제의 난이도, 중요도, 또는 선호도와 같은 과제의 특성이 각 지연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연행동의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 각 유형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격 변인이 무엇인지 밝혔다는 점, 특히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지영 (2005). 충동성,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정 (2010).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통.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주, 정대용 (2010).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 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975-991.

심혜원 (1995). 완벽주의 성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오경자 (2009).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동기 수준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8(2), 363-377.

이수민 (2011). 완벽주의, 스트레스 반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이정아, 현명호 (2009). 만성 지연행동과 적응. 스트레스연구, 17, 199-207.

이현수 (1992).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www.kci.go.kr

임성문 (2006). 각성형과 회피형의 만성적 지연행동 측정: Ferrari가 제안한 방법은 타당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91-102.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채숙희 (1997). 완벽주의 성향 및 주의 방향이 수행불안과 인지적 방해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 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Ait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 9*, 191-198.

Barratt, E. S. (1985). Impulsiveness subtracts: Arous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Spence, J. T., & Irard, C. E.(Eds), *Motivation, emo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Elsevier Science.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Burka, J. B. & Yuen, L. M. (2008). 미룸: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습관 [*Procrastination*]. (윤상운 역). 서울: 넥서스BIZ. (원전은 1983에 출판).

Chu, A. H. C. & Choi, J. N. (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245-264.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 1-9.

Dewitte, S. & Schouwenburg, H. C. (2002). Procrastination, temptations, and incentives: The struggl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procrastinators and the punctua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469-489.

Dunn, O. J. & Clark, V. (1969). Correlation coefficients measured on the same individua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4*, 366-377.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Fee, R. L. & Tangney, J. P. (2000). Procrastination: A means of avoiding shame or guil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67-184.

Ferrari, J. R. (1992). Procrastinators and perfect behavior: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presentation, self-awareness, and self-handicapping compon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75-84.

Ferrari, J. R. (1993). Procrastination and impulsivity: Two sides of a coin? In W. McCown, M. B. Shure, & J. Johnson (Eds.), *The impulsive cli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65-2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

www.kci.go.kr

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406.

Ferrari, J. R. & Emmons, R. A. (1995). Methods of procrastination and their relation to self-control and self-reinforcemen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Social Behaviour and Personality, 15*, 185-196.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num Press.

Ferrari, J. R., & McCown, W. (1994). Procrastination tendencies among obsessive-compulsives and their relativ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162-167.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Frost, R. O., Marten, P., Lahart, C. M.,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4*, 449-468.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Journal of Human Behavior, 13,* 27-33.

Hammer, C. A. (2002). Differential incidence of procrastination between blue- and white-collar workers. *Current Psychology, 34*, 73-83.

Hewitt, P. L., Flett, G. L., & Blankstein, K. R. (1991). Perfectionism and neuroticism in psychiatric patients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273-279.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58-176). Newbury Park, CA: Sage.

Johnson, J. & Bloom, M. (1995). 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to variance in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27-133.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Lay, C. H. (1987). A modal profile analysis of procrastinators: A search for 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705-714.

Lay, C. H. (1995). Trait procrastination, agitation, dejection, and self-discrepancy. In J. R. Ferrari, J. L. Johnson, &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97-112). NY: Plenum Press.

Marsh, H. W., Bella, J. R., & Hau, K. T. (1996). An evaluation of incremental fit indices: A clarification of mathematical and empirical properties.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r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315-35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cCown, W. & Johnson, J. (1991). Personality and chronic procrastination by students during an academic examination peri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62-667.

www.kci.go.kr

McCown, W., Johnson, J., & Petzel, T. (1989). Procrastination,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197-202.

Milgram, N. (1991). Procrastination. In R. Dulbecco (Ed.), Encyclopedia of human biology (Vol. 6, pp. 149-155). New York: Academic Press.

Milgram, N., May-Tal, G., & Levison, Y. (1998). Procrastination, generalized or specific,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297-316.

Missidine,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Pychyl, T. A., Lee, J. M., Thibodeau, T., & Blunt, A. (2000). Five days of emotion: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 procrastin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239-254.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dler, C. D. & Sacks, L. A. (1993). Multidiment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 863-871.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Spitzer, R. L., Gibbon, M., Skodol, A. E., Williams, J. B. W., & First, M. B. (1989). *DSM-III-R casebook: A learning companion to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 65-94.

Tice, D. M. & Baumeister, R. F. (1997). Longintudinal study of procrastination,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dawdling. *Psychological Science, 8*, 454-458.

Tuckman, B. W. (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ation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473-480.

원고접수일 : 2014. 08.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2. 03.
게재결정일 : 2014. 12. 0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147-172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Impulsiveness on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Hyo-sun Huh[1)] Sun-young Lim[2)] Seok-man Kwon[3)]

[1)]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2)]Department of Counseling & Industrial Psychology Sun Moon University
[3)]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current study, a measurement that assesses academic initiation-procrastination(AIP)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ACP) was developed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wo types of procrastination, impulsiveness, and perfectionism were explored. In study 1, a preliminary version of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AICPS) was constr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151 undergraduate student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scale was composed of two factors, and 18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version of AICPS. In study 2, data collected from 296 undergraduate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ICPS. AICPS demonstrated an adequate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wo-factor structure was confirm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vergen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 tests among AICPS, Aitken's Procrastination Scale (API), Korean version of CES-D, and 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In study 3,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and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mpulsiveness explained AIP whereas perfectionism did not.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ACP was greater than that of impulsiveness. The implication,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initiation-procrastination, completion-procrastination, perfectionism, impulsiveness

www.kci.go.kr